

광주지역 모바일 범죄 갈수록 기승

고액 미끼 조직원 모집...범죄 지난해 2배 증가 초등생 대상 뽐캠도...경찰 "무관용 강력 처벌"

올 들어 광주지역에 보이스피싱과 뽐캠 협박 등 각종 모바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단순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범죄 조직원을 모집하는 한편,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뽐캠 범죄 사건도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1월에 61건(피해액 9억9,000만원), 2월 67건(피해액 8억

4,000만원) 등이 발생, 지난해 월평균 30여건과 비교해 2배가량 발생 건수가 늘었다.

실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358건(피해액 101억원)이며, 2017년 210건(피해액 33억2,000만원), 2018년 205건(피해액 37억7,000만원) 등이다.

이처럼 지역 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광주경찰은 이날 '고액 알바 구인광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초대장일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문을 배포했다.

광주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을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것으로 속여 피해액 수거책으로 활용시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의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죄 사례를 보면 시민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대부업체 현금 수급업무 채용 광고를 보고 연락해 수급 수당 10만~15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액 1,300만원을 전달하다가 구속됐다.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들은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단순 배송 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구인 광고를 올려 건당 수익 지급을 약속해 면접도

없이 채용한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 이체하라고 지시해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킨다.

경찰은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돈을 받는 장소를 사진 찍어 전송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 ▲돈을 주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자신을 금융위원회 대리 등으로 거짓말을 지시한 경우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은 경찰 검거 이후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고 선처를 호소하지만, 이들도 공범

으로 결국 구속되는 등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뽐캠 협박' 사건도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강력 대응이 나왔지만 바로 다음 날에서도 버젓이 초등학생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현재 이 같은 '뽐캠' 사건을 현재 20여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모바일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며 "범죄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3~21	흑산도	7~17
담양	4~21	구례	4~21
화순	5~21	곡성	4~20
영광	5~21	완도	8~18
함평	4~21	강진	5~19
무안	5~20	장흥	4~19
영암	5~20	해남	5~19
진도	6~17	고흥	4~17
신안	7~21	보성	3~17

일출 06:29 일몰 18:48
월출 07:09 월몰 19:33

목포	만조 02:52 15:12	여수	만조 09:57 22:07
	간조 08:07 20:26		간조 03:35 15:55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목포 노부부 코로나19 확진

붕어빵 노점 운영...동선·접촉자 파악

목포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 연산동에 사는 A씨(61여)와 B(72)씨에 대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검사 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다.

목포 연산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까지 장사를 했다.

이후 발열, 오한, 식은땀 등 증상이 발현돼 22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딸 2명, 손자 2명과 22일 자택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A씨는 증상이 호

전되지 않아 23일 오후 2시 아들 자가용을 이용해 목포 소재 내과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특히 A씨는 한 교회 신자로 전해졌으며 증상이 발현 전인 지난 8일 이후 교회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무안에서 목포까지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전남 서남권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목포 소재 내과의원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의료인 11명, 동거 중인 아들 1명, 식사를 한 딸 2명, 손자 2명 등 가족 5명은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김용현 기자



밀반찬에 사랑을 싣고

광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가족나눔분과 황의남 위원장과 회원, 자원봉사자들이 24일 오전 황술촌 상무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가정 200세대에 전달할 전복, 돼지고기, 고등어 등의 밀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민식이법' 시행...광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지역 내 모든 초교 앞 시속 30km 제한

광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광주 관내 157곳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제한한다.

지난 22일까지 간선도로 소통을 위

해 시속 50km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췄다.

송원초등학교 등 5곳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조성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했고, 유치원 등 어린

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99대 증설할 계획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광주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음주 뺑소니 50대 검거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50대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7분께 서구 쌍촌동 한 교차로에서 A씨(51)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 중인 20대 여성 운전자 B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A씨는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가 도주하자 사고 현장을 목격 한 한 시민이 뒤를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km가량 도주 행각을 벌인 뒤 도주로를 막고 있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김영민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